

제 1편 전온양시 6개동 마을의 이모저모



온양온천 1동 (溫陽溫泉 1洞)



온양온천 1동은 15개 통으로 나뉘며 세밀하게는 93개 반으로 이루어졌다.



<온양온천 1동 사무소 전경>

☒ 온양온천 1동 개항

- 근치연혁

본래 온양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온천이 있어, 온천이라 하는데, 온양온천 1동이 탄생되기까지 연혁을 살펴보면 옛 백제시대에는 탕정군이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탕정주의 일부였으며, 고려시대 때에는 온주현으로 속해 있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양군으로 승격되었는바, 그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1914년 3월 1일 일제가 한일 합방 후 온양군을 신창·아산과 통합하여 아산군으로 정하고 온양면이라 하였으며, 1941년 10월 1일에 온양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그 후 45년이 지난 1986년 1월 1일자로 온양읍이 대통령령 제 3789호로 온양시로 승격되면서 온천동으로 불리다가 1995년 1월 1일 도·농 도시통합 정책에 따라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통합되어 온양시 온천 1동의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온양온천 1동이라 정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온양온천 1동은 옛날부터 아산시의 행정,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부도시이다.

- 반 수

온양온천 1동은 총 15개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더 세밀하게는 9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가구수

온양 온천 1동의 가구 수는 2,963가구이다. (2001년 12월 31일 기준)

- 인 구

총인구는 8,742명으로 남자가 4,389명, 여자는 4,353명으로 인구밀도는 5,568.15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 면 적

온양온천1동의 면적은 1.57km²로 시 전체의 0.3%를 차지한다.

- 경지면적

경지면적을 보면 농가가 1.4%로 경지면적 또한 83ha로 적다. 토지 지목별 현황으로는 전 55ha, 답 28ha이다. 농기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10대, 트랙터 4대, 이앙기 3대, 콤바인 2대, 양수기 1대, 건조기 3대, 관리기 5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12월 31일 기준)

- 농가구 현황

온양 온천 1동의 농가 수는 41가구로 총 가구 수의 1.4%이다.

- 산업별 현황

온양온천 1동의 산업별 사업체수를 알아보면 총 2,249개소 중에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796개소, 숙박 및 음식점이 651개소 그리고 금융, 보험, 교육서비스업 등 802개소로 아산시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자리하였다.

- 학교별 현황

학교별 현황은 초등학교 1개교(1,672명), 중학교 1개교(847명), 고등학교 2개교(2,268명)가 있다.

- 의료시설

의료 기관으로는 총 49개로 의원 31개, 치과 14개, 한방 4개소가 자리하고 있다.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농협 3개소, 체신예금 2개소, 마을금고 3개소, 시중은행이 5개소(조흥, 하나, 우리, 국민, 기업)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온양온천 1동에 모여 있다.

- 문화재 현황

문화재로는 온양관광호텔 경내에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지정 문화재자료 제 227호

온천리 석불과 문화재자료 제228호 영괴대, 문화재자료 제 229호 신정비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주필신정비>



· 주필 신정비

주필 신정비문에는 “세조 8년 봄 2월에 우리 주상 승천체도열문영무전하께서 남쪽으로 충청도를 순수하시면서 속리산 복천사에 거동하사 혜각존자를 만나보시고 그 뒤 3월초 1일에 온천군의 온양에 거가를 머무르셨다. 그러한지 4일만에 신천이 홀연 뜰에 가득히 솟아 흘러 찼다.

임금이 크게 기이하게 여겨 그곳을 파라고 명하니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그 차기는 눈과 같고 그 맑기는 거울 같았으며 맛은 달고도 짜릿하고 수질이 부드럽고도 고왔다. 왕이 명하여 수중한 재상들에게 나누어 보이시니 서로 돌아보고 놀라고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또 서로 이르기를 옛날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기어 물이 따뜻하고 이 우물은 차니 이는 실로 상서로운 발로라 하여 8도에서 표문을 올려 하례를 칭송하였다” 는 임원준의 기록이 있다.

세조 14년에 남쪽으로 순행하실 때에 자성대왕대비가 같이 행행하여 온천에 머무르고 있을 때 신정이 솟아오르는 상서로움이 있었다. 드디어 이름을 신정이라 내리어 그 이름이 기리 전하게 하라고 비에 새기도록 하였다. 다음해 봄 2월에 자성대비가 온천에 가행하여 본즉 신정은 있는데 비는 일부가 망가져 있었다. 이 때에 옛날 일을 생각하여 감구하는 마음을 이길 길이 없어서 내수사에게 명을 내려 비용을 대어 집을 짓고 비를 새로 세우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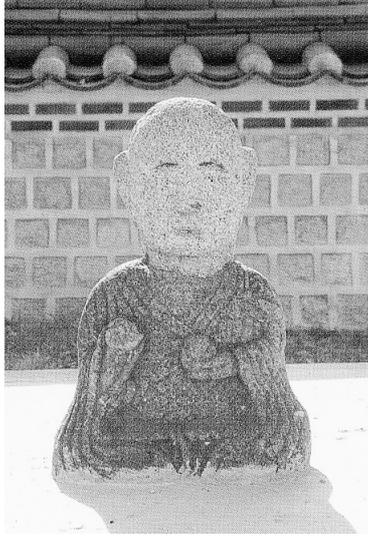
그리고 월산대군 정과 덕원군서와 하성부원군 정현지 등에게 명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신 임원준에게 그 일을 기록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내가 또 이 기록을 쓰게 되는구나 내가 그전에 시를 쓴 지가 여러 해가 지났다. 머리털이 희끗희끗하게 세었으니 인간사는 이렇게도 쉽게 바뀌는 것일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 있어서 이번에 또 호위하게 되니 이것도 운명이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눈물을 머금고 그 진미를 쓴다” 고 하였다.

성종 12년(1476)3월에 세조대왕의 행사 기념으로 임원준은 글을 짓고 이숙함은 글을 써 세웠다. 근래에 온양 철도 회사에서 비각을 건축 단청하고 비를 보호하여 오다가 이 호텔이 민간인에게 불하된 후부터는 지금의 온양관광호텔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다.

이 비는 해서체로 썼으며 금석학자료로써 그 가치가 크다.

<온천리 석불>



· 온천리 석불

작은 돌부처로 조선후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정 때인 1927년 신창면내에 파손되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현 온양 관광호텔에 이전해 온 것이다.

높이 84cm인 이 석불은 둥근 얼굴에 범의는 통편이며 두 손은 무엇을 들어 마주 쥐고 가슴 위로 올리고 있다. 불상이라기보다는 승상으로 보인다.

<영괴대비>



· 영괴대비

영괴대비는 정조 19년(1795년)에 건립된 것으로 영괴대란 제필은 정조의 어필이고 윤행임

이 썼다. 영조 35년(1760) 8월에 온천에 왔을 때 장헌왕세자가 행계하여 무술을 연마하던 사장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왕이 군수 윤염에게 명하여 이 사대에 느티나무 3주를 심게 하고 토대를 쌓아 영괴대라 이름하였다. 그 후 군수들이 나무를 심고, 단을 더 쌓았으며, 그 느티나무가 무성하여 큰 그늘을 지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정조가 19년 (1795) 9월에 몸소 영괴대명을 짓고, 윤염의 아들 예조참의 윤행임을 시켜 글씨를 쓰게 하고 비각을 세웠다. 현재는 영괴대 주위에 9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으며 비의 높이는 1m, 폭은 46cm이다. 비각은 팔작 지붕위에 정면, 측면 1간이며, 4면이 홍살로 되어 있다.

－ 공장현황

회 사 명	공 장 소 재 지	생 산 품 명
신호 페이퍼	온양 온천1동 13통 941번지	종이

－ 종교분포

분 류	단 체 명	소 재 지
기독교	온양교회	온양 온천1동 1통 307-8번지
	온양 삼일 교회	온양 온천1동 5통 104-4번지
	온양 침례 교회	온양 온천1동 5통 98-17번지
	꿈이 있는 교회	온양 온천1동 7통 1476번지
	소망 교회	온양 온천1동 8통 41-10번지
	온양 안식일 교회	온양 온천1동 10통 260-21번지
	신촌 교회	온양 온천1동 11통 14-101번지
	아산 영락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1357번지
	예담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1403번지
	순복음 세계 선교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1443번지
	아산 중앙 침례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348번지
	순복음 온천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437번지
	성지 감리 교회	온양 온천1동 12통 1057번지
	아름다운 교회	온양 온천1동 1382번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온양 교회	온양 온천1동 260-21번지
성공회	대한 성공회	온양 온천1동 3통 82-17번지
불교	진광사	온양 온천1동 5통 36-42번지
	법왕사	온양 온천1동 8통 1726번지
	만덕사	온양 온천1동 13통 1049번지

<조사당시 온양온천 1동 전경 사진>



－ 동 명칭유래

온양온천1동은 본래 온양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온천이 있으므로 온천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화리 일부를 병합하여 온천리라 하여 아산군 온양면(읍)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온양시로 승격됨에 따라 온천1동이 되었고 1995년 온양시와 아산시가 통합되면서 온양 온천1동이 되었다.

온천 1동이 형성된 구체적인 입향 과정은 확실하게 알 길이 없고 다만 고문헌에 따르면 온천과 왕실의 잦은 행차로 온천동은 정치, 경제적 중심지가 되어 크게 발전하여 왔으며 옛말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현상을 가리켜 온양에 전다리 모이듯 한다는 표현이 있듯이 온양의 지명을 속담에까지 인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번창하였던 것이 짐작이 된다.

－ 통별 인구분포

온양온천1동의 인구를 보면 총 8,680명으로 남자가 4,353명 여자가 4,327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4통과 15통은 아파트 단지이므로 인구 밀도가 높다.

구 분 마을 명	계	남 자	여 자
온양온천1동 1통	738명	349명	389명
온양온천1동 2통	336명	167명	169명

온양온천1동 3통	470명	234명	236명
온양온천1동 4통	607명	308명	299명
온양온천1동 5통	410명	213명	197명
온양온천1동 6통	252명	129명	123명
온양온천1동 7통	462명	235명	227명
온양온천1동 8통	676명	327명	349명
온양온천1동 9통	428명	212명	216명
온양온천1동 10통	479명	231명	248명
온양온천1동 11통	428명	217명	211명
온양온천1동 12통	519명	266명	253명
온양온천1동 13통	247명	143명	104명
온양온천1동 14통	1,305명	645명	660명
온양온천1동 15통	1,323명	677명	646명

－ 통별 가구수

온양온천의 총 가구 수는 2,963가구이고, 농가는 41가구이고, 비농가는 2,922가구이다.

각 통별 현황을 알아보자.

구 분 마 을 명	농가	비농가
온양온천1동 1통	233 가구	0 가구
온양온천1동 2통	121 가구	0 가구
온양온천1동 3통	200 가구	0 가구

온양온천1동 4통	230 가구	0 가구	230 가구
온양온천1동 5통	144 가구	0 가구	144 가구
온양온천1동 6통	95 가구	0 가구	95 가구
온양온천1동 7통	159 가구	6 가구	153 가구
온양온천1동 8통	245 가구	0 가구	245 가구
온양온천1동 9통	162 가구	0 가구	162 가구
온양온천1동 10통	161 가구	0 가구	161 가구
온양온천1동 11통	156 가구	15 가구	141 가구
온양온천1동 12통	209 가구	0 가구	209 가구
온양온천1동 13통	81 가구	20 가구	61 가구
온양온천1동 14통	400 가구	0 가구	400 가구
온양온천1동 15통	367 가구	0 가구	367 가구

- 통별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가	비농가
온양온천 1동 1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2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3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4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5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6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7통	100%	4%	96%

온양온천 1동 8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9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10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11통	100%	19%	81%
온양온천 1동 12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13통	100%	28%	72%
온양온천 1동 14통	100%	-	100%
온양온천 1동 15통	100%	-	100%

- 농경지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온양온천 1동	83ha	28ha	55ha

- 산업별 현황

구분 마을명	계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도소매 소비 자용품 수리업	기타
온양온천 1동	100%	5%	29%	2%	2%	35%	27%

- 통별 농기계

농기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7통이 경운기 2대, 관리기 1대이고, 11통은 경운기 2대, 예취기 2대를 13통은 경운기 5대, 관리기 5대, 예취기 5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통들은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예취기	콤바인	건조기
온양온천 1동 7통	2 대	-	-	1 대	-	-	-
온양온천 1동 11통	2 대	-	-	-	2 대	-	-
온양온천 1동 13통	5 대	-	-	5 대	5 대	-	-

- 통별 문화시설

각 통별 문화시설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통사무소가 각각 1개소가 있으며 구비된 방송 시설이나 마을문고 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엠프	방송시설	마을문고	사물놀이악기
온양온천 1동 1통	1개소	1조	1조	-	-
온양온천 1동 2통	1개소	1조	1조	-	-
온양온천 1동 3통	1개소	1조	1조	-	-
온양온천 1동 4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5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6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7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8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9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10통	1개소	-	-	-	-
온양온천 1동 11통	1개소	1조	-	-	-
온양온천 1동 12통	1개소	1조	-	-	-
온양온천 1동 13통	1개소	1조	1조	-	-
온양온천 1동 14통	1개소	1조	1조	-	-
온양온천 1동 15통	1개소	1조	1조	-	-

- 최고령자

온양온천 1동의 최고령자는 김정인 할머니(104세)이다.

- 통별 사진

<온양온천 1동 1통>



은양의 중심부에 위치, 교통·상업의 중심지
은양온천초등학교, 정우새마을금고, 은양양노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은양온천 1동 2통>



그랜드파크호텔 근처 일대

<은양온천 1동 3통>



국민은행, 인터파크텔 등이 위치한 곳

<은양은천 1동 4통>



은천공 2/3가 밀집, 우체국, 농협, 조흥은행, 신천탕이 위치한 곳

<은양은천 1동 5통>



은양 시장 통 골목 뒤쪽으로 은양경찰서, 구 은양신용금고와
옛 은양등기소 및 삼일교회가 위치한 곳

<온양온천 1동 6통>



아산고등학교 오거리와 번영로를 접한 지역

<온양온천 1동 7통>



온양천을 경계로 온천 12통과 인접한 지역
아산시청과 아산고교가 접해 있는 곳

<은양온천 1동 8통>



시민로와 접하며, 상설시장이 위치한 지역

<은양온천 1동 9통>



은양 관광호텔이 위치한 부근
장미마을, 뽕장골목, 깡통골목이 위치한 지역

<온양온천 1동 10통>



전 온양시청자리인 무궁화 아파트, 낙원주택 등이 위치한 지역

<온양온천 1동 11통>



실옥 1통 초입과 인접한 지역으로 온양고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마을

<온양온천 1동 12통>



온양온천 7통과 온양천을 사이로 구분된 지역으로
온천 1동사무소, 등기소, 싸진 거리가 위치

<온양온천 1동 13통>



신호페이퍼가 위치한 지역 (청룡골이라고도 함)

<온양온천 1동 14통>



일성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

<온양온천 1동 15통>



대아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

- 지명

온양온천 1동은 도시형태로 발전되다 보니 모두 현대화되어 옛 흔적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옛 지명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몇 분을 통해 옛날 불리던 곳의 지명을 다음과 같이 조사 할 수 있었다.

- 신 선 동 : 지금의 삼성증권 뒤쪽에 형성된 마을로 현재 시가지화 되었으며, 당시 일본인들과 신흥 유지들이 주로 살던 곳으로 새로 형성된 마을이란 뜻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된장골목 : 6·25 당시 피난민들이 된장을 비롯한 부식류를 팔던 골목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금의 시민로 일부분을 말한다. (현재 9통에 있음)
- 깡통골목 : 깡통을 활용 각종 생필품을 만들어 팔던 골목이라 붙여진 것으로 지금의 수협 앞 일대를 말한다.
- 쌈전골목 : 쌀을 파는 행상들이 모여들어 붙여진 이름. 1963년 4월에 미곡시장 허가가 남. 지금은 시민로 후편과 복개천 앞을 말한다.
- 밤 나무골 : 밤나무가 많다하여 붙여진 이름 (현재 온천11통)

·온양관광호텔 (신정관, 행전터, 철도호텔)

: 백제 때부터 온천이 있어서 병에 특효가 있으므로 온천수(溫泉水)에 얽힌 많은 전설을 남기고 있으며 이조때에는 세종 15년(1433) 1월 안질 치료차 세종대왕이 이곳에 와서 여러날 동안 있었으며 그 이듬해 3월에 세종이 이곳에 거동하여 90일동안 눈병을 치료하였고 세조(世祖) 10년 (1464) 3월 세조가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을 구경하고 이곳에 행전(行殿)을 짓고 17일 동안 있었으며 현종(顯宗) 6년 (1665) 4월에 이곳에 거동하여 40일 동안 숙종(肅宗)43년 (1717) 3월에 20일 동안, 영조(英祖) 26년 (1470) 9월에 8일 동안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왕실에 유일한 소유로 되어 오다가 일제때 신정관(神井館)으로 고쳐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1945년 해방후 철도호텔이 되었다가 1965년에 민간인에게 불하되어 온양관광호텔로 고쳐져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음.

- 군수심탁 선정비 : 온양읍 사무소 구내에 있는 군수 심탁의 선정비(현재 온양 그랜드파크호텔 옆으로 읍사무소는 없어지고 식당가로 변하여 확인이 안됨)
- 신정터 : 선정비 서쪽에 있는 신정의 터로서 세조 10년(1464) 2월에 세조가 보은 속리산 복천사에 거동하였다가 그 다음달인 3월에 온천에 오셨는데, 별안간 뜰 앞에서 물이 솟아오르므로 세조가 이상히 여겨 이를 파보도록 하매 물이 팔팔 솟으며 빛이 옥같이 맑고 맛이 차고 맑으므로 모든 신하들이 치하하고, 팔도에서 표를 올려 축하하며, 그 이름을 신정이라 하였으며, 그 옆에 선정비가 있다.
- 행전터 : 온양관광호텔 안에 있던 임금님의 행전(行殿)터라 한다.
- 활터 : 처음 신정관이 서면서 활량들이 모여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남산에 활터를 옮기었다. (지금의 노인복지회관 자리 - 해방후 없어졌다.)
- 영괴대 : 온양관광호텔 뒤뜰 안에 있는 대로서 오래된 느티나무가 9주가 있는데 3주는 단 안쪽에, 3주는 단 남동쪽에, 3주는 단 남서쪽에 서 있었으며, 영조 35년 (1760년) 8월에 온궁에 장헌세자가 행계하여 무술을 연마하던 사장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당시 군수 윤엽에게 명하여 괴대에 느티나무 3그루를 심었고, 토대를 쌓고

영괴대라 칭하였다고 한다.

영괴대는 문화재자료 제 228호로 지정되었다.

·영괴대비 : 영괴대 북쪽에 있는 비로 높이 1m, 폭이 46cm의 비인데, 정조가 왕세자가 되었을 때 군수 윤염에게 느티나무 3주를 사대에 심게 하였는데, 그 후 군수들이 나무를 더 심고 단을 쌓았으며, 그 느티나무가 무성하여 큰 그늘을 지었으므로 정조는 이 말을 듣고 19년(1795)에 영괴대비란 제표를 몸소 지어 쓰고 윤염의 아들 윤행임을 시켜 글씨를 쓰게 하고 비각을 세웠다.

·주필 신정비 : 온양관광호텔 구내 남쪽에 있는 비로 세조행행기념으로 성종 7년(1476)에 세운비로서, 신정에 대한 사실을 적었는데, 중추원 부사 임원준이 글을 짓고 절충장군 이숙함이 글씨를 썼다고 하며, 원래는 어의정 주변 노천에 초라하게 세워진 것을 일본인이 현 위치에 옮기고 온천장의 이름도 신정관이라고 지었다는 설도 있다.

신정비는 문화재 자료 제 2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충탑 : 온양관광호텔 안에 있는 사충의 탑을 일컫는다.

·온천리 석불 : 온천리 석불의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 같으며, 일정시(日政時)인 1927년 신창면에서 파손되어 산재해 있던 것을 모아 현 온양관광호텔에 이전해 온 것으로 문화재 자료 제227호로 지정 되었다.

·석천사 이층탑 : 온천동에 있는 탑. 신라 때 작품이라 하는데 현재 서울여관 안이 됨(현재는 없음)

·온천[마을] : 온천동

·온천[보건탕,신정탕] : 온천동에 있는 온천

·신정관 : 현재의 온양관광호텔=철도호텔

·용천교[다리] : 온천에 있는 다리

·장충단 : 온양중학교 교정에 있는 단비, 6.25사변 때 순직한 유진호, 이영환, 이택윤, 권길옥, 김은경을 추념함. 현재는 온양중학교가 용화동으로 옮기면서 함께 옮김.

·해과정 : 조선의 왕들이 행운하여 유숙하던 행궁의 관전 건물로 영괴대 (현 온양 관광 호텔 구내에 소재함)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자취를 볼 수 없다.

－ 전설

● 온양온천

온양 온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인데 온양온천이 발견되기까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옛날 아득한 옛날에 온양 땅에 한 가난한 절름발이 노파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서 빨리 짝을 지어 손자나 보았으면 하는 것이 더없는 소망이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이 자라서 혼처를 구하려니 넉넉한 살림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 될 사람마저 절름발이여서 딸을 주겠다고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러지 않아도 절름발이 다리를 한스럽게 여겨 왔는데 그것이 허물이 되어 아들의 결혼까지 할 수 없으니 더욱 원망스러웠다. 중매쟁이는 노파가 너무도 간청을 하는 바람에 다시 중매를 서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아랫마을에

사는 김침지네 집으로 나는 듯이 달려갔다. 그에게는 과년한 언청이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침지는 혼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침지의 이야기가 절름발이인 시어머니한테는 딸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중매쟁이는 할 수 없이 물러나와 황영감네 집으로 갔다. 이제 과년한 딸이 황영감네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황영감 딸은 한쪽팔이 곰배팔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황영감은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답답하리만치 오래도록 담배만 뽁뽁 빨더니 안되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딸이 한 팔을 못 쓰는데 시어머니마저 한쪽 발을 못 쓰면 남들이 모두 반편들만 모인 집안이라고 놀릴 텐데 어찌 그런 집으로 시집을 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중매쟁이는 할 수 없이 이집에서도 돌아서고 말았다. 노파는 중매쟁이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얼마나 분했는지 모른다. 더구나 자기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서글프기까지 했다. 노파는 생각다 못해 한쪽다리를 절며 찾아갔다. 부처님께 삼대독자인 아들을 장가보내게 해달라고 불공을 드리기를 위해서였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아들이 장가를 들 수 있게 해 달라고 불공을 드렸다. 그런 어느날 관음보살이 나타나더니 순서가 틀렸다면 아들이 장가가는 것보다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부터 빌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관음보살이 시키는 대로 불공을 드렸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공중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듣거라 네 정성이 지극하여 네 소원을 들어 주겠으니 내일 낮에 마을 앞에 있는 들판에 다리를 절름거리리는 학 한 마리가 날아 올테니 잘 살펴보도록 하라” 노파는 이런 소리를 듣고 캄캄한 산길을 더듬거리며 내려왔다. 그런데 그 학은 앉은 자리에 뱅뱅 돌면서 그 자리에서 날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도 그 학은 그 자리에서 같은 짓을 하더니 사흘이 되던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뚜벅뚜벅 걸어 다니더니 어디론가 훨훨 날아가 버렸다. 이 모양을 보고 있던 노파는 하도 신기하여 학이 서 있던 곳으로 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기이하게도 눈에 있던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파는 그 물속에 발을 담그고 열흘간이나 있었다.

그랬더니 절름거리던 다리가 신통하게 나았다. 그래서 삼대독자에게는 부처님이 알아본 사람이라 하여 혼인 말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병을 고치겠다는 사람이 마구 몰려드는 바람에 온양온천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 열 녀 비

충청도 온양 땅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의 딸이 나이가 차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부가 실행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레 과부가 된 신부는 죽어 버리려고 하다가 청주에 홀로 계신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아버지께 “나의 슬픔도 크나 자식을 잃은 시부모의 마음은 더 슬플 것입니다.” 하며 청주로 시집살이 하러 새하얀 상복을 입고 길을 떠났다.

시부모님 공경을 물론이요, 완전한 주부가 되어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맞춰 정성껏 지냈다. 하루는 이부인이 시부모한테 간곡히 청하기를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며 시부모를 설득하여 양자를 들여 친자식 못지 않게 사랑하며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후에 세월이 흘러 집안 살림도 넉넉해지자 아들 내외를 불러 놓고 “내가 할 일은 다 한 모양이니 행복한 가정을 가꾸라” 는 말만을 남기고 다음날 약을 먹고 죽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선비들이 이부인을 위해 비석을 세웠는데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옛날 온양에 충효사가 건립되어 충무공 이순신과 창암 강봉주와 양심 윤현 등을 받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대원군 때 철폐되어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